

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 지방이전 방안 연구

- 전문가 및 대상기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

김태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thkim@krihs.re.kr)

수도권의 기능 집중현상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으며, 주택가격의 상승, 교통혼잡, 환경오염, 공공서비스 공급비용 증대 등 많은 집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수도권 과밀 및 지방의 낙후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립적인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실천전략의 하나로써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및 대상기관에 대한 의견조사를 수행하여 공공기관 이전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이와 연계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 및 공무원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나 정책추진의 속도는 어느 정도 조절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효과면에서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의 발전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계획의 수립 및 검토를 추진한 기관이 매우 적었던 점을 감안할 때, 본 정책의 취지를 대상기관에 충분히 설득시키는 등 추진과정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전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이전 대상지역은 중앙정부가 이전 대상 시·도까지 결정하고 구체적인 입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문가 및 각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기관의 자율적 선택을 우선 고려해야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여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및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이전대상지역 조정 및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요소로 지역의 특성화 발전전략을 꼽고 있으며, 그 외 이전기관의 기능 효율화 및 업무특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방식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이 집단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2~5만 정도 규모로 종합적 성격을 갖는 공공기관 집단화 지구의 성격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이전대상지역은 기존 도시내 또는 인접 지역의 활용가능한 부지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단화 단지의 입지조건으로는 기존도시의 생활편의 근접성, 쾌적한 근무조건 확보 등 환경성, 고속도로 접근성, 고속철도 역 접근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 비용은 이전적지 매각 등 이전적지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전적지 활용에 대해서 전문가와 대상기관의 의견이 대비되는데, 전문가의 경우 일부만 매각하여 기관의 이전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의 확보를 통한 수도권 지자체의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

면 대상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일괄 매수하여 이전 비용에 충당하거나 이전대상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이전효과에 대한 의견에서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지역특화산업 및 연관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는 등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이전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이전과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되었는데, 기관 조사에서는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연계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관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주거시설 및 생활환경 등의 악화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직원들의 자녀교육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대책, 특히 거주·교육 등 생활환경에 대한 확고한 지원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하는 기관 과 종사자는 물론이고 이를 유치하는 지방의 지역들, 현재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협력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을 통해 기관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하고, 이전하는 지역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또한 이전하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계기를 통해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